

팩트체크 + 보고서		 <small>The Media Network for Justice</small>
2020-2주차	발행일: 2020년 1월13일(월)	
연락처	(02) 741-7662 (유은실)	FAX (02) 741-7663
참여위원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조충열 황우섭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 보고서」

(2020-2주차)

- 대상 매체·프로그램 : KBS뉴스9, JTBC뉴스룸
- 대상 기간 : 2020년 1월 6일(월) ~ 2020년 1월 12일(일) 7일간
- 참여 위원 :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 보고서 발표일 : 2020년 1월 13일

차 례

I. 종합 분석 (전수 조사)4
II. ‘KBS 뉴스9’의 ‘검찰보도 팩트체크’6
III. 법규를 위반한 KBS의 검찰보도와 청와대의 검찰수사 방해9
IV. ‘JTBC뉴스룸’의 정부여당 감싸기 및 반미선동성 보도10
V. 文정권과 연합뉴스의 평행이론 ‘북한 짝사랑’과 ‘정권 짝사랑’13
VI. KBS <시사기획 창> ‘교회정치, 광장에 매몰되다’ 팩트체크15
* 참고 말씀16

I. 종합 분석 (KBS뉴스9, JTBC뉴스룸 보도 전수 조사)

<KBS뉴스9>

● 정권 편향적 검찰인사 보도

: 1월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전격 단행후 주요 기사로 8건이나 보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관의 '인사 항명'이라는 시각으로 일방적 보도. 검찰청 법상의 장관과 총장 간의 협의과정이 절차와 원칙, 관례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다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음에도 균형 차원의 이런 시각의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 [1.8]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격 단행...‘윤석열 사단’ 대거 교체
- [1.8] 총장, 인사 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장관, 총장 의견 없이 인사 단행
- [1.9] 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숙청...정치권 거센 공방“
- [1.9] 윤석열 “사표 쓰지 않겠다”...남은 수사영향은?
- [1.9] 靑 “윤 총장 의견 수렴 과정 유감...수사 공정할 것” (청 입장 강조)
- [1.10]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의견 거부’ 윤석열 징계 나서나
- [1.10] 추미애식 검찰 개혁 본격화 “수사단 만들때 승인 받아라”
- [1.10] 청와대로 간 野 “검찰 대학살”...與는 “항명”

● 정치사회성 짙은 사건수사 보도의 불형평성

정치사회성 짙은 사건과 사안의 보도에서 정권의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수사 보도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검찰과 청와대간 공방이라는 식의 사실상의 편향적 보도로 일관하고(3건), 조국 전 수석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의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비공개 결정은 비판없이 단순 전달 보도했으며(1건), 정권실세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사건 등은 아예 보도도 하지 않은 반면에, 세월호 관련 보도(4건), 삼성 비판 보도(4건), 김학의 사건과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각 1건등 친 정권 시각의 보도는 9건이나 내보내는 불형평성을 보임.

(정권 관련 사안의 무비판 보도 4건)

- [1.10] ‘압수 영장’ 놓고 충돌...검찰,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 [1.11] 빈손 압수수색에 진실공방...“수사 아닌 쇼”...“법원 영장 따라야”
- [1.12] 靑 압수수색 영장 내일 재집행...靑-檢 이틀째 위법공방
- [1.9] 정경심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22일 정식 재판 시작

(친 정권 시각의 사건·사안 보도 9건)

- [1.8]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6명 구속 심사
- [1.8]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청와대 대면보고만 35차례
- [1.9] 대법원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판단...“직권 남용 아냐”
- [1.9] 전직 대법관 내세운 삼성 준법감시위...“이재용 면피용 기구”
- [1.10] “별장 성폭력 수사 은폐 밝혀달라”...김학의 수사 3라운드
- [1.10] 검찰, 옛 삼성 미전실 김종중 사장 소환...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
- [1.10]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협박사건' 파장...삼성 “해킹 아닌 외부 유출”
- [1.10] 세월호·분단·위안부...한국의 아픔 담은 세계적인 예술가들
- [1.12] [간추린 단신] 한국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 “내일 사퇴” 외

● 자사(KBS)의 경제위기 관련 중요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 외면

: 1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신년기획으로 발표한 '한국의 경제상황 나쁘다(79%) 대 좋다(18%)'의 신년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 외면.

● 축의금 3억원 접수 정세균 총리후보 청문회의 1건 단순 보도

: 축의금을 3억원이나 받은 윤리적 문제와 3권 분립국가의 한 축인 국회의장 출신이 다시 총리를 하겠다고 하는 부적절성의 문제 등을 안은 정세균 총리후보 청문회를 단 1건의 기계적 보도로만 끝냄.

[1.7] 정세균 “대통령에게 직언할 것”...野 “출처불명 재산 증식”

<JTBC뉴스룸>

● 정세균 총리후보의 축의금 3억원에 면죄부를 주는 'JTBC 팩트체크'

: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 그 포인트는 한 마디로 끝날 사안이고, 문제는 국회의장을 역임했고 총리까지 하겠다는 고위 정치인의 윤리성 문제이며, 나아가 정치권의 뇌물 성격도 다분한데 이를 비판적·대안추구적 팩트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주고 있음. 주요 뉴스 보도에서도 '현역 국회의장이 아니므로 총리직 괜찮다'는 식으로 면죄부성 보도로 일관.

[1.8 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

[1.7] 정세균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 그건 현직 때 얘기"

● 친 여권·반 야권 편향도가 심한 전반적인 뉴스 보도

: 정권과 정치에 큰 영향을 준 정치사회성 짙은 보도 26건 가운데 24건이 여권 관심 사안 보도(17건) 또는 야권 폄하·비난성 보도(7건)으로 편향도가 심했으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여권의 문제 사안은 2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불과한 가운데 그마저 단순 사실 보도로 그침.

(야권 폄하·비난 보도 6건)

- [1.6] [뉴스브리핑] 검찰, '조국 딸 생기부 공개' 주광덕 통신영장 기각
- [1.6] 야간시위 금지되자 '노숙'...한기총 '출퇴근 집회' 전환
- [1.6] 이번엔 '학력 위조' 혐의...또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
- [1.7] "뭉쳐야 산다" 한국당 빅텐트론...출발도 하기 전 '빠격'
- [1.7] 조원진·유승민 등...'빅텐트' 입주 대상자들도 시큰둥
- [1.8] 나경원 "끌려나가는 모습 보여야"...패트 총돌 그날의 독려
- [1.8] 보수 대통합 내세우자 친박 반발...야권선 주도권 싸움

(여권의 관심사안 또는 긍정시각 보도 17건)

- [1.6] '구조 실패' 6명 첫 영장...해경간부 부실 지휘로 303명 희생"
- [1.6] 목표해양서 "퇴선명령했다" 감사원에 '거짓 답변' 정황
- [1.6]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공동협의회 구성하자"
- [1.7]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합병 의혹' 정조준
- [1.7] 정세균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 그건 현직 때 얘기"
- [1.8] [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
- [1.8]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출신 출마' 거론...'경선 원칙
- [1.8] MB '다스 항소심'...검찰 "징역 23년" 1심보다 중형 구형
- [1.8] 기무사 '유가족 감시 보고서'...박근혜는 피해자 묘사
- [1.8] 세월호 해경 지휘부 6명 구속 갈림길...'법적책임' 부인
- [1.8] [비하인드+] '세월호 유가족 사찰'...LG트윈스 팬이 죄?
- [1.9] 풀려난 안태근...서지현 검사 "대법 판단, 납득 어렵다"
- [1.9] 정경심 '표창장 재판' 비공개로...'이중기소' 놓고 공방
- [1.9] 세월호 해경 수뇌부 영장기각...법원 "책임 여지는 있어"
- [1.9] 도피 중에도 '연금' 탄 조현천...이달부터 지급 끊긴다
- [1.9] '계엄문건 USB' 속 조현천...주요 순간마다 수차례 등장
- [1.12] [뉴스브리핑] "정유라 '출결특혜' 담임 해임은 정당" 2심 판결

(여권의 권력형 비리 단순 보도 2건)

- [1.7] '자리 제안' 관련, 한병도 전 정무수석 검찰 소환조사
- [1.6] 조국 전 장관 3차 조사...'뇌물 혐의' 유재수 첫 재판 <이상>

Ⅱ. 'KBS 뉴스9'의 '검찰보도 팩트체크'

1. 일자별 KBS <뉴스9> 리포트와 팩트체크

1) 1.8(수) KBS <뉴스9>

▶리포트1 :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격 단행...‘윤석열 사단’ 대거 교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8556>

▶리포트2 : 총장, 인사 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장관, 총장 의견 없이 인사 단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8557>

▶ 팩트체크: ‘권력비리 수사단 해체’를 검찰총장의 ‘면담거부’ 때문처럼 몰아갔음.

2) 1.9(목) KBS <뉴스9>

▶리포트1 : 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속청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9334>

▶리포트2 : 윤석열 “사표 쓰지 않겠다”...남은 수사영향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9335>

▶리포트3 : 靑 “윤 총장 의견 수렴 과정 유감...수사 공정할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9337>

▶팩트체크 : 법무장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정권실세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란 비판” 의견은 소홀하게 보도했음.

3) 1.10(금) KBS <뉴스9>

▶리포트1 :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의견 거부’ 윤석열 징계 나서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0015>

▶리포트2 : 추미애식 검찰 개혁 본격화 “수사단 만들 때 승인 받아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0016>

▶팩트체크 :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총장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하고, 검찰의 특별 조직은 불가피한 때만 만들 때, 그것도 사전에 장관 승인을 받도록 압박했음.

2. 1.8(수)-1.10(금) KBS <뉴스9> 보도 팩트체크 종합 : 왜곡, 조작여론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번 검찰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라고 볼 수도 있다.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나아가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閑職)으로 보냈다.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했다.
-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 현직 부장판사(김동진)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룬 결론이다."는 의견을 SNS에 올렸다.
- <KBS뉴스9>는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하여 정파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정권실세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란 비판 의견과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소홀하게 보도했다. 이는 왜곡,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Ⅲ. 법규를 위반한 KBS의 검찰보도와 청와대의 검찰수사 방해

: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는 ‘검찰 인사와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고 법규에 맞게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KBS뉴스9>의 ‘검찰 인사’와 ‘청와대의 권력형 비위’에 관한 보도 12건(1월 6일 1건, 7일 1건, 8일 2건, 9일 4건, 10일 3건, 11일 0, 12일 1건) 거의 대부분을 정권 편에서 홍보 방송을 하고 있다. 법규 어디에도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 방송을 하라는 곳이 없다.

(방송법)

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②항에서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4)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으로 명기, 강제하고 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조(방송의 공적책임)에서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①항)“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③항)”고 명기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 2조는 “①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 4조(검사의 직무)는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에서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에 따른 검찰의 수사 무력화를 시도한 청와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연하고도 충분히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찰청법과 방송심위원회법은 공정성을 제도화했다. 검찰청은 ‘정치로부터 독립’을 규정한 법에 따라 정권 차원이 아닌, 국민의 차원에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방송은 청와대의 뜻과는 관계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KBS 보도 내용은 추미에 법무부 인사에 집중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농단 수사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 인사’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2) 청와대의 범죄 사실 보도를 외면, 검찰 개혁을 왜곡보도하고 있는 KBS

검찰 개혁은 인사 즉 '직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에 따라 타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 ①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문재인 대통령 절친한 선배) 당선을 위한 선거 개입(범죄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추미애 전 민주당 당 대표를 검찰총장에 임명, ②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검찰 무마 건, ③조국 수사 방해 등은 전부 청와대와 관계가 있고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검찰의 '직분'이고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그런데 KBS 보도는 인사 등 거의 '직위'에 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인 '범죄 사실 보도'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

3)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의 (2020.01.09.) <검찰 인사 주도한 최강욱·이광철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 방해한 것>

<KBS 관련 기사>

- 2020.01.06 <추미애·윤석열 내일 첫 대면...검찰 인사 폭 커지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6984&ref=A>

- 2020.01.07 <추미애-윤석열 첫 공식 만남...검찰 인사 윤곽 나오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7752&ref=A>

- 2020.01.08 <총장, 인사 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장관, 총장 의견 없이 인사 단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8557&ref=A>

- 2020.01.08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격 단행...'윤석열 사단' 대거 교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8556&ref=A>

- 2020.01.09 <靑 "윤 총장 의견 수렴 과정 유감...수사 공정할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9337&ref=A>

- 2020.01.09 <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속칭>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9497&ref=A>

- 2020.01.09 <윤석열 "사표 쓰지 않겠다"...남은 수사영향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9335&ref=A>

- 2020.01.10. <'압수 영장' 놓고 충돌...검찰,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0017&ref=A>

- 2020.01.10.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의견 거부’ 윤석열 징계 나서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0015&ref=A>
- 2020.01.12 <靑 압수수색 영장 내일 재집행…靑-檢 이틀째 위법공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0663&ref=A>

IV. 'JTBC 뉴스룸'의 정부여당 감싸기 및 반미 선동보도

■ 검찰장악 은폐형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뉴스룸의 보도는 정권의 검찰 장악 및 수사방해에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발, 법무부발 받아쓰기 보도가 주를 이루며 검증보도는 전혀 없음. 법무부 인사의 호남편중, 윤석열 수족 자르기, 조국, 유재수, 울산시 공작선거 등 여권 수사방해 의미와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등 불법적 측면은 전혀 짚지 않는 기계적 보도로 일관했다.

- 문 대통령 만난 뒤 인사 단행…윤 총장에 '경고' 메시지 (1/8)
- 추미애 "윤석열 총장이 제 명 거역"…의견 미청취 반박 (1/9)
- 공식입장 안 낸 청와대…내부선 “검찰이 자초한 인사” (1/9)
- 뽀뽀이 흩어진 윤석열 사단…향후 '검찰 수사' 영향은? (1/9)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역안배 주장이야말로 jtbc 팩트체크 대상임에도 하지 않음)

■ 정부여당 감싸기형

1. 문재인 대통령 비판은 성역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말한 남북협력사업 5가지 (도쿄올림픽 단일팀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 협력과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를 비롯해 여러 구상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여론 비판도 많은데 뉴스룸은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받아쓰기식 보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폭등한 사실 등 실제 발생한 부정적 효과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문 대통령 "김 위원장 답방 노력…부동산 투기와 전쟁" (1/7)

2. 정세균 감싼 뉴스룸

- 정세균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 그건 현직 때 얘기" (1/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8357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축의금이 3억입니다. 사회통념상 받은 금액을 초과하셨을 때는 증여세를 내셔야 해요.]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품앗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넘게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냈겠습니까?]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러 문제적 발언과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지 않는 기계적 보도로 일관.

- "13일 수사권 조정-총리 인준안 상정"…국회 충돌 재연되나 (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8557

- [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 (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8538

뉴스룸은 3억 축의금은 아무 문제없다는 정세균 후보자와 여권의 일방적인 주장을 팩트체크를 명분으로 면죄부를 준 왜곡 보도다. 정세균 후보자는 장남 장녀의 결혼 축의금으로 각각 1억 5천씩 들어왔다고 밝혔다. "제가 40년 넘게 낸 것의 품앗이 성격"이라고 해명했으나 축의금은 사실상의 뇌물 성격도 있다. 두 자녀 혼사 당시 후보자는 통합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5선 관록의 영향력 있는 신분으로 산업부장관 경력도 지냈다. 자녀 혼사에 대해 정치권과 소관 상임위 관련부처 기업들은 눈도장을 찍기 위해 축의금을 냈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또 대법원이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에게 과도한 축의금을 받으면 뇌물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똑같은 잣대는 어렵더라도 뉴스룸은 일부 뇌물성 축의금이 포함될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만 줌. JTBC 팩트체크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치선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사례.

■ 반미선동

- [인터뷰] 테헤란 지역 우리 교민들 안전은?…이성주 씨 (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8574

뉴스룸은 미국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 사건과 관련하여 이란 교민과 인터뷰.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고 소개된 이성주씨는 이란 현지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이란에 기울어진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사실상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인을 인터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 인터뷰 내용도 우리 교민 안전문제와도 상관없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인터뷰를 연결해 반미정서 부추긴 보도.

V. 文정권과 연합뉴스의 평행이론-‘북한 짝사랑’과 ‘정권 짝사랑’

- 연합뉴스의 편파 보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갈수록 체면도 염치도 없이 정권만 바라보는 보도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 ‘뉴스의 도매상’으로서 사실에 기반한 중립적 논지를 견지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략하는 모양새다. 이쯤 되면 고객사들의 전재료 이외에도 거액의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정권의 눈치만 보는 ‘정권기간통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트럼프 친서 소동’도 전형적인 편파 보도의 한 사례다. 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5시 18분과 5시 46분 <트럼프, 김정은에 생일 메시지…방미 정의용 통해 어제 전달>이란 제목의 기사를 (종합)과 (종합2보)로 내보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26352001?input=1195m>) 2박3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정 실장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축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힌 게 핵심 내용이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고리로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한 상황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함께 도발 자제 요구 및 북미 협상 재개 의지가 메시지에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ㄷ 연합은 같은 날 밤 10시 23분 <트럼프, 김정은에 생일축하로 손짓…'툭다운해법' 교착 뚫을까>라는 제하의 워싱턴특파원 기사에서 한술 더 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56000071?input=1195m>)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한 번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 “지난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김 위원장의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하며 대북 문제에 대한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등의 기사는 뭔가 큰 것이 곧 이뤄질 듯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신문과 방송이 이내 연합의 보도를 뒤따른 것은 물론이다.

- 하지만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바로 그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며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중뿔나게 끼여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며 편견함으로써 앞서의 기사들은 모두 오보가 되고 말았다. 정권의 ‘북한 짝사랑’에 발맞추느라 온통 장밋빛으로 채운 기사들을 내보냈다가 김칫국만 마신 꼴이 됐다.

ㄷ 다른 매체보다 먼저 보도해야 하는 연합으로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송고한 기사에서 100%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는 통신이 잘못을 인지하고도 즉각 정정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밋빛이 아니고 먹구름임을 얼른 적시하고 사태의 진전 내용을 적확히 알리는 게 통신 본연의 임무다. 연합은 그러나 평양으로부터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스토키 수준으로 애걸복걸 매달리는 정권의 기수 노릇에 충실했다.

- 김계관의 담화는 첫 문장에서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비아냥댔다. 담화는 ‘허망한 꿈’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미련’ ‘호들갑’ ‘자중’ ‘멍청한’ ‘감지덕지’ ‘바보 신세’ 등의 모욕적 언사로 우리 정부를 한껏 조롱하고 비웃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 사항을 전폭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재개는 없다는 일부 내용을 빼고는 대부분 남한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다.

ㄷ 연합은 그런데도 11일 오후 2시 31분 (속보), 4시 (2보), 오후 4시 52분 (종합) <북한 김계관 "제재완화와 핵 안바꿔…우리 요구 수용해야 대화">란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하며(<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35452504?input=1195m>) 이 같은 사실은 기사 맨 끝에 몇 줄 걸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굴욕 자세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12일 오후 1시 51분에 내보낸 <"허망한 꿈 꾸지말라"…남북관계 개선 '가시밭길' 예고>란 기사에서는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2028300504?input=1195m>) 김계관의 담화가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비핵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가망성이 없다고 북한이 스스로 인정한 ‘요구 사항 전폭 수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키운 것이다. 김계관이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만 봐도 연합의 해석과는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

- 이번에 워싱턴과 평양이 메시지를 직접 주고받았는데도 미국으로부터 이 사실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균열 여부 확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연합은 간과했다. 오히려 12일 오후 12시 37분에 내보낸 [연합시론]에서 <북미 새해 벽두 탐색전, 다름과 차이 확인한 것도 성과다>라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제목(<https://www.yna.co.kr/view/AKR20200112017600022?input=1195m>) 을 붙이는 무모함도 마다지 않았다. 한마디로 북한이 아무리 면박을 주더라도 평화만 외치는 정부의 ‘북한 짝사랑’에 열렬히 호응해 멋대로 왜곡 보도하겠다는 ‘정권 짝사랑’의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 보도 행태다.

VI. KBS <시사기획 창> ‘교회정치, 광장에 매몰되다’ 팩트 체크

(2020.1.11/토, 20:06-20:59, KBS 1TV) 방송 다시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0401&ref=A>

1. 방송내용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가능성과 파장, 그 한계 등을 짚어 보았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극단적인 정치 활동의 모습과 역사적 배경, 그 의미 분석
-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이끌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직의 역사성, 반공 사상과 보수 교회 지도자들이 개입한 과거 정치사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지난해 10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광화문 광장 집회와 청와대 앞 광야 교회 예배를 취재함.
-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된 기독교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민혁명 정치학교’ 운영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와 보수 인사들에 대해 취재함.

- 전국 조직을 선거구와 같은 253개 지역구로 구성해 기독교자유당의 비례대표들을 국회에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광훈 목사, 기독교인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신념의 근간과 이념적인 토대를 살펴봄.

2. 팩트체크

- 문재인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성명 발표 후 광화문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극단적인 막말로 규정함.
- 집회참석자들은 기존 언론을 배척하고 극우 보수논객들의 유튜브를 통해 역사를 배우며 SNS 단톡방을 통해 각종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를 얻고 있다고 설명
-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와 보수 인사들을 극우 행보로 몰아갔음.
-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점점 높아지는 막말 수위와 기부금 품법 위반 및 학력 위조·목사 자격 논란까지 각종 의혹과 고발사건에 휘말렸다고 전광훈 목사를 매도함.
- 전광훈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문재인 하야 등을 외치는 것을 ‘극우 보수층의 잘못된 이념에 기인한 극단적인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방송내용을 왜곡하고 있음.
- 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는지, 즉 문재인 정권의 ‘친북행보’와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는 물론 ‘조국사태’와 ‘선거법’과 ‘공수처 법의 날치기통과’, 그리고 청와대관련 3대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검찰해체’ 등 현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
- 결론적으로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광장 집회 참가자들은 잘못된 이데올로기, 증오심,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등에 매몰되어 있다는 왜곡된 시각에서 제작되었다고 판단됨.

3. 팩트체크+

- KBS는 이미 지난해 12월 20일 KBS 1TV <시사직격>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이 까?’에서도 50분 정도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바 있음.
- 2016년 11월 28일 KBS 1TV <다큐멘터리3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에서 ‘촛불시위 참여자들’을 영웅화한 내용과 아주 대비되고 있음.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3일> 프로그램에서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방송을 동일시간으로 편성했어야 했음.
- 이러한 불공정한 방송행태는 KBS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라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아, 공영방송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태는 공영방송의 소중한 자원인 ‘방송수신료’에 대한 ‘거부운동’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공영방송 KBS 스스로 제공하고 있음. 끝.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